

## 어느 로마군 사령관의 의로운 결정 이야기

- 푸블리우스 페트로니우스 -

아침 6시 40분에 출근하는 아들을 지하철 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조금 더 자고 약간(?) 늦게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소파에 앉아 책도 읽고... 참으로 오랜만에 누리는 여유로운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삶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며...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일 하고 하루는 꼭 쉬도록, 그리고 사람에게든 짐승에게든 쉬을 보장하도록 명령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로마시대(신약시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 직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가 남긴 저서들 가운데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한 로마 장군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푸블리우스 페트로니우스(Publius Petronius). 그는 '갈리굴라'(Caligula, '작은 신발': 어릴 때 장군이던 아버지를 따라다닌 까닭에 로마 군인들이 애칭으로 붙여준)라는 별명의 폭군으로 알려진 로마 황제 가이우스(Gaius, 주후37~41년 통치) 시대에 시리아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리아 총독은 유대 총독보다 한 단계 지위가 높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에 통제불능의 문제가 발생하면 시리아 총독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임명한 가이우스 황제, 이 친구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괜찮은 편이었는데, 점차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향에 극단적인 잔인함을 겸비한 폭군이 되었고, 특히 자신을 신격화 하는 일에 진심으로 열을 올리던 인물이었죠. 그러다보니 자기 조각상을 많이 만들어 모든 지역의 신전 마다 비치하고 이를 신상(神像) 처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가이우스 황제('갈리굴라')

다른 것은 몰라도 황제의 조각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고 이를 신(神)으로 섬기라는 명령에 유대인들은 총체적으로 저항했고, 이에 황제는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3개 군단을 거느리고 가서 항거하는 유대인들은 처형하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모조리 노예로 팔아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페트로니우스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곡식 추수도 미룬채 나아와 그에게 명령의 철회를 간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지금 너희 유대 민족만 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자 황제 모독이며, 만일 이 명령 대로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나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그는 '매뉴얼 대로' 유대 백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우상숭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며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신으로 섬길 수 없고, 대신 황제를 위해 매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부디 이 점을 이해해 달라고 그에게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이들의 신념과 죽음을 각오한 결의를 보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뒤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요세푸스의 기록을 인용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위험을 감수하겠다. 내가 신의 도움으로 황제를 설득할 수 있다면 너희들과 함께 내 목숨도 구하게 되어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해서 황제의 분노를 산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

을 각오가 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심한 페트로니우스를 위해 한없이 축복을 빌어주었고, 그는 모인 백성들은 평안히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유대인들을 향한 명령의 철회를 청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폭군 황제의 답변은 냉혹했습니다. 황제는 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페트로니우스에게 스스로 자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황제의 명령서가 작성되어 전령을 통해 페트로니우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페트로니우스는 자신의 자결 명령을 담은 황제의 명령서 보다 앞서 가이우스 황제가 암살당했다는 서신을 먼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궂은 날씨 때문에 가이우스 황제의 명령서는 배달이 늦어졌고, 오히려 암살당한 황제의 사망 소식이 급보로 먼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자결하라고 했던 황제의 명령서는 그 황제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 보다 27일이나 늦게 페트로니우스의 손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페트로니우스는 자결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이우스 황제는 3년 남짓 통치하다 암살당했고, 그의 후임은 클라우디우스(Claudius, 성경의 ‘클라우디오’ 행11:28) 황제였는데, 페트로니우스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다시 등용되어 비교적 평안한 삶을 누렸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은 신약시대 유대의 권력자들과 로마 제국의 정치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정말 거의 다 사악하거나 권력 지향적으로 세속적이기 그지없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 그래서인지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언급은 있기는 한데 거의 하찮은 수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3:10-12) 함과 같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고위급 장군이자 정치인이었던 페트로니우스 또한 평생 선한 삶을 살았던 의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쁜 행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인생에서 한 번 중요한 순간에 자기 목숨을 걸고 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부끄럽고 나쁜 행동도 많이 하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 하기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적어도 인생에 한 번 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선한 길을 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소망을 고백했던 그 강도 처럼, 인생에 단 한 번의 선한 결정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트로니우스가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결정을 내렸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유대인들이 큰 심판을 받은 시점은 아니었기에...) 그러나 페트로니우스는 이 순간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유대 민족을 공홀히 여기는 큰 마음을 품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되도록 움직이셨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980년 금성 하이테크 칼라비전 TV의 선택이 그러했다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선한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5:7)

(\* 봄을 기다리며 최광현·이상아 드림)